

전주시, 내년도 예산 2조6920억원 편성

올해 대비 1202억원 증액... 시의회 심의 요청

전주시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02억 원(4.68%) 늘어난 총 2조 6920억 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100만 광역도시 기반 조성 △시민이 부자 되는 강한 경제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서는 문화 △일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등을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시는 전주의 천년 미래를 위한 100만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 416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완주·전주 상생협력 활동 지원 9억 원 △완주·전주 파크골프장 조성 4억 원 △완주·전주 상생 철길 3억 원 △MICE 복합단지 조성 320억 원 △명품복합환승센터 42억 원 △전주역사 개선프로젝트 5억 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00억 원 △에코시티 서측 연계도로 개설사업 3억 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지원 8억 원 △스마트 노상주차장 5억 원 △주차타워 조성 20억 원 등 교통인프라도 확충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80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1억 원 △전

기자동차 등 구매지원 339억 원 △소자동차·시내버스 구매 및 도입 지원 467억 원 등을 편성했으며,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6억 원 △재해취약지역 정비(월평, 공덕, 미산) 29억 원 △객사천 재해취약지구 정비 15억 원 △가로등 조도 개선 5억 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강한 경제 전주를 견인할 주력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 대전환, 민생경제 지원,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등 1466억 원 규모의 경제 분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드론스포츠클럽센터 건립 31억 원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50억 원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110억 원 △탄소산단 진입도로 건설 10억 원 △국가탄소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20억 원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휴비스 부지 매입 30억 원 △전주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19억 원 △산단의 재난예방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10억 원 △팔복탄소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2억 원 △메카노바이오엘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양성센터 1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등이다.

동시에 시는 △지역화폐 발행 83억

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28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0억 원 △공매달임 운영 4억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12억 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21억 원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6억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5억 원 △스마트 농업기술 지원 6억 원 등 소상공인을 비롯한 농업인 지원 예산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전주 관광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예산도 세웠다. 세부적으로 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74억 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10억 원 △전주부성 복원 10억 원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48억 원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55억 원 △한국형 영화화교음원 사운드랩 구축 13억 원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290억 원 △실내체육관 건립 30억 원 △완산합동 한빛마루 공연 31억 원 △덕진공원 열린공간 조성 12억 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예산과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예산 1조 890억 원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생애전주기 맞춤형 복지 예산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 67억 원 △보육료 617억 원 △아동수당 360억 원 △아이돌봄 지원 117억 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비 등 지원 146억 원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사업 9억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8억 원

△기초연금 2617억 원 △생계급여 1661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497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638억 원 △보호수당 지원 74억 원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65억 원 △권역재활병원 건립 83억 원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5억 원 등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청년 생활 안정 및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출발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4억 원 △전북 청년지역청장 지원사업 44억 원 △전북청년취업역량수당 22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5억 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12억 원 △글로벌 30 15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효자 4등 주민센터 건립 20억 원 △시 청사 별관 확충 사업 예산 197억 원도 반영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된 '제41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5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 전주의 큰 꿈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제40차 전북병원회 정기총회가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됐다.

전북병원회 정기총회·회장 이·취임식

신총식 예수병원장, 제18대 신임 회장 취임

예수병원(병원장 신총식)은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제40차 전북병원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전임 회장인 서일영 원광대병원장과 신임 회장인 신총식 예수병원장의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취임식에는 전북대학교병원 양종철 병원장, 군산의료원 조준필 의료원장, 남원의료원 오진규 의료원장, 전주병원 태형진 병원장, 정읍병원회 임원회원 병원장과 내외분 200명이 참석했다.

제18대 전북병원회 신임 신총식 회장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의학석사를 마쳤으며, 전주 예수병원에서 2003년부터 정형외과 과장을 시작으로

2022년 6월부터는 예수병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대한정형외과 호남 슬관절지회 부회장과 (사)전북 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신총식 전북병원회 18대 회장은 "의정각들이 지속되면서 의료환경의 급변한 변화에 여러 병원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병원회의 권익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결한 자세로 소통하며 위대한 목표를 향해 적극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정상 지원 촉구

청년 안정적 주거권 보장 위해... 최서연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정상적인 지원을 촉구 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서연(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체 의원 35명 중 33명의 동의로 상정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정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지만, 지원 대상의 기준 완화와 부족한 예산으로 전주시의 경우 12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 했다.

또 "정부는 9월말 기준 17개 광역단체 중 7곳의 교부금이 전액 사용되는 등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전주시 등 여러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에 청년 월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교부를 요구하고, 한시사업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닌 지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정상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운ENC, 전주덕진소방서에 소방대원 위한 런닝머신 기증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지난 15일 (주)가운ENC와 본서 2층 체력단련실에서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가운ENC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체력증진과 복리를 위해 500만원 상당의 런닝머신 두 개를 전주덕진소방서에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김덕호 (주)가운ENC 대표, 강봉화 서장을 포함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물품 전달식 △(주)가운ENC소개 △소방대원들의 감사 인사 및 소감 인터뷰 △단체사진 촬영 등이 진행됐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470명 규모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전주시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돕기 위해 올해(437명)보다 33명 늘어난 총 470명 규모의 2025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은 크게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와 복지일자리(참여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전북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분야별 일자리 규모는 △일반형 일자리 118명 △복지 일자리(250명) 특화형 일자리 43명 △전북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52명 등이다.

먼저 일반형 일자리의 경우 전일제(주 5일, 40시간) 80명과 시간제(주 20시간) 38명을 선발하게 되며, 희망자에 오는 27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총 250명 규모의 복지일자리 중 경우 복지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과 전

주장애인종합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전북복지체장애인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느루결음에서 오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특화형 일자리로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등에 파견되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16명),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25명) 등이 제공되며, 참여자는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52명)을 추진할 수행기관을 오는 11월 29일~12월 3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 또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 사회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